

# ILT (닭 전염성 후두기관염) 방역대책

(ILT 바이러스는 면역효과가 뚜렷하지 못하게 흡이므로 백신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

오 경 록

(천호그룹 기획실)

## ① 발 생

닭 전염성 후두기관염은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82년 3월초에 강화도에서 발생한 이래 한해여동안 전국에 번져서 거의 국내 전 양계업계에 피해를 주었던 병이다.

그 이후 2년여 잠잠한 상태에서 이곳 저곳에서 ILT가 발생이 되었으나 큰 피해없이 지나오다 85년 10월이후부터 서서히 발생이 시작되어 현재에는 육계, 산란계 농장 모두를 강타하면서 또 한차례 진통을 겪게 하고 있다.

## ② 병원체

병원체는 허피스바이러스군에 속하며 이 바이러스는 자연 환경하에서 저항성이 비교적 약하다.

특히, 열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며 죽은 닭의 기관이나 폐조직내에 들어있는 바이러스는 37℃에서 2일만에 죽게 되며 실온에서는 10일간 밖에 생존하지 못한다. 0℃ 이하에서는 3~10년간 생존할 수 있다. 일광에 대해서도 약하여 직사광선에서는 1~3일이면 죽는다.

일반적인 소독약에 대해서 쉽게 죽으며 거의 1분안에 죽는다.

## ③ 전 파

바이러스가 주로 상부호흡기와 눈을 통하여 침입하여 발병하며 발병계의 호흡기에서 배출된 점액이나 혈액의 응고 덩어리에 의해서 전파되고 나간다. ILT에 감염되었다가 죽지않고 회복된 닭은 보균계가 되어 오랫동안 바이러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올인 올라우트가 안되는 현실정에서는 농장에 항시 감염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참 발생이 되고 있을 때에는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감염계사에 접촉이 되었던 기구, 계분, 차량, 사람, 동물(취, 새, 개 등)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묻어가게 된다.

## ④ 증 상

임상적으로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 급성, 중간형, 만성으로 나누지만 대체적으로 목을 길게 빼고 입을 벌리는 개구호흡과 혈액이 섞인 삼출물이 기침시 배출되어 깃털이나 케이지에 묻기도 한다.

눈에는 포말성 눈물을 보이고 심한 경우에는 객객거리든지 갈갈거리는 호흡음이 심하다.

호흡이 곤란할 경우에는 벼슬이 변하고 항문이

튀어나온다. 폐사율이 증가되면서 급이량은 급속히 떨어지며 산란계에서는 급이량을 빨리 회복시켜주는 관리방법이 폐사율을 줄이고 회복을 빨리시키는 방법이 된다.

### 5) 백신접종

ILT에 대한 백신접종은 계절과 주위 발생 상황에 따라 관계기관이나 전문수의사의 권장에 따라 적절한 접종 일령을 선택하여야 하며, ILT 바이러스는 면역효과가 뚜렷하지 못하게 흡이므로 백신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ILT에 대한 대책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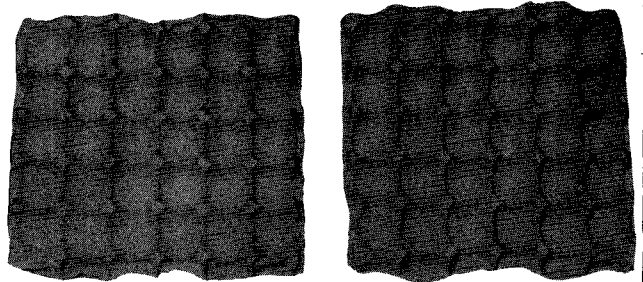
- 백신접종
- 올인 올 아웃 (all in all out)

- 입추준비시 소독철저
- 소경개선(환기, 온도, 습도) 등을 병행하여야 ILT에 대한 종합적인 방역대책이라 할수 있다.

또한, 육계 농장에서 처음 ILT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점점 발생일령이 21일령이내로 떨어지면 입추중단하고 농장을 휴식하는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사료 회전, 자금 회전 등의 이유로 계속 입추를 하게 되면 결국은 ILT로 인한 파산도 불사하겠다는 만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ILT의 주발생계절이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이므로 이 기간에 대한 ILT 대책을 사전에 강구해 놓아야 매년 피해를 줄일수 있을 것이다. ■

## 위생적인 종이난좌를 사용합시다

- 30 개들이 왕란, 종란용 난좌
- 30 개들이 보통난좌



### 규격 종이난좌는

1. 신선도 유지
2. 부화율 향상
3. 질병 예방
4. 파란 방지

## 제일성형제지공업사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운암리 536-3  
 전 화 (0351) 63-7363 · 7097  
 연락처 (0342) 3-6239 · 43-1042